

2007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①	5	②	6	④	7	⑤	8	③
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②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①	23	①	24	⑤
25	②	26	③	27	①	28	⑤	29	②	30	④	31	④	32	③
33	③	34	②	35	①	36	③	37	⑤	38	⑤	39	①	40	②
41	②	42	④	43	②	44	④	45	⑤	46	⑤	47	④	48	②
49	①	50	③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덕은 제주에서 양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 기생의 수양딸이 되어 기생 명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스무살이 되던 해,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만덕은, 관아에 호소하여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장사에 뛰어난 만덕은 해상 교통의 중심인 포구에 객주를 차렸습니다.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들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육지 사람들에게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굴, 전복, 말총 등을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구와 선박까지 소유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덕이 유명해진 것은 활발한 빈민 구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4년여에 걸친 흉년으로 제주 주민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500여 석의 쌀을 사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쌀로 많은 제주 주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여성들은 결혼해서 제주에 사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덕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임금계 직접 상소를 올려 남성들조차 구경하기 힘들었던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아이들에게 ‘만덕 할망처럼 살아라’라고 할 정도로 만덕은 제주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지 묻는 문제이다. ‘만덕’이 임금계 상소를 올린 것은 남성들도 구경하지 못한 궁궐과 금강산 구경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덕’의 진취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③ 제주 여성들의 관습적인 삶이 소개되고 ‘만덕’은 이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였다. ④ 기생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 ‘만덕’의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불규칙적인 소음은 업무에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자신이 있는 곳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설치된 칸막이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양탄자를 깔든지, 천정의 재료로 흡음재를 사용한다면 소음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실의 경우 천정에 흡음재를 사용한다든지, 바닥에 양탄자를 까는 일이 드뭅니다.

천정의 높이도 소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정의 높이가 낮으면 앞에서 설명한 차음과 흡음의 방법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중화’입니다. 중화는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소리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덮는 방법입니다. 소음을 덮는 이러한 소리를 중화음이라고 합니다. 중화음을 발생시키면 사람들이 소음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에서 배경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음과 흡음과 중화,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사무실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 천정의 높이가 낮으면 차음과 흡음의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천정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②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3>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여기 기사 좀 봐. 내년 정부 예산에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 : 그래?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빈곤층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던데, 잘 됐지 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겠지.

남 : 물론 정부가 나서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닐까? 경기가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그 혜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으로 스며든다고 봐. 빈곤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 사회 복지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하고,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지 않을까?

여 : 글썄. 내 생각은 좀 달라. 과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빈곤층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 여기 이 자료들 좀 봐. 최근 10년 간 분명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어. 대기업이 거두어들인 순이익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야. 그런데, 여기 봐 봐.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크게 오르고 있어. 그에 비해 우리 국민의 개인 소득은 조금씩밖에 늘고 있지 않아. 우리 엄마도 아빠 월급은 늘었는데 살림하기는 더 힘들다고 하셔. 그러니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겠어.

3. [출제의도] 발화의 근거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 여학생이 제시한 근거는 여학생의 두 번째 발화에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 최저 생계비’를 비교한 자료는 정부 차원의 사회 복지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여학생의 입장에 맞지도 않고 여학생의 발화에 제시된 바도 없다.

<4-5>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유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선생님.

장 선생님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선생님, 우선 유머의 뜻부터 알아보을까요?

장 선생님 : 유머는 어원상 ‘사람의 기질’을 뜻했죠. 이것이 ‘인간의 행동이

나 말이 내포하는 웃음'을 뜻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풍자와 비교해서 유머를 설명해 보고 싶어요. 풍자는 우월한 태도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풍자에는 공격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머는 소재나 대상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지, 우월의 태도는 담고 있지 않아요.

진행자 : 그러니까 유머가 풍자보다 따뜻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요즘 유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어떤가요?

장 선생님 :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나 관공서, 또는 학교에서도 유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유머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하여 상대의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해졌고 그 방법으로 유머가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진행자 : 유머를 구사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 선생님 : 유머를 구사하려면 먼저 청자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청자에 맞는 유머를 해야죠. 어린이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려면 가끔 괴성도 지른다거나 바보짓도 해 줘야 하죠. 청소년들에게는 짧은 퀴즈, 삼행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른들에게는 정치나 경제 쪽으로 분야를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유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장 선생님 : 그래요. 쉬운 걸로 해 보죠. 일 더하기 일은 얼마죠?

진행자 : 그야, '2' 아닐까요?

장 선생님 : 아닙니다. 과로입니다. 일에 일을 더하면 과로가 되지 않겠어요?

진행자 : (웃으며)아, 그렇군요.

장 선생님 : 이렇게 유머는 청자의 예상을 비켜 나감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표현을 하면 대부분 웃기 마련이지요. 이런 방법을 쓴다면 누구나 유머를 쉽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4. [출제의도] 세부적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장 선생님'의 마지막 발화에 따르면 유머는 청자의 예상을 비켜 나감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자의 예측에 부합할 때 유머가 효과가 있다고 한 ①은 이 대답에 제시된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5.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장 선생님'이 제시한 유머 구사의 방법은 그가 제시한 유머의 사례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철수'는 '따뜻한 말'이라는 표현으로 '영희'에게 기대 또는 예상을 형성하고 있고, '가스보일러' 등을 통해 기대를 비켜 나가고 있다. '가스보일러' 등은 물리적인 따뜻함의 대상이며 영희가 기대하는 정서적인 따뜻함과는 성격이 다르다.

6.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통해 연상한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왼쪽의 사람은 굵은 나무를 보고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오른쪽 사람은 '새들의 쉼터'가 되어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쓸모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한 사람은 대상의 단점을, 다른 사람은 대상의 장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7. [출제의도] 제시한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와 '비유와 대구의 표현 기법을 활용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에서 소외된 이웃을 '나무'에, 사랑을 '방한복'에 각각 비유했다. 또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나무들'과 '냉정한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문구의 내용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랑을 '연탄불'에 비유했을 뿐 나머지 조건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제시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③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만 드러나 있다. ④ 대구의 표현과 주제는 드러나 있지만 비유의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8. [출제의도] 개요의 수정 방안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쓰고자 하는 글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본론2의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생긴 이유'로 제시한 ㉠의 '북한 핵문제에 의한 갈등 심화'는 상위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 제시한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화' 역시 상위 항목인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생긴 이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제시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낸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한 자료 중, (㉠)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므로 ⑤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은 세 가지 자료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와 ③은 자료 (㉠)과, ④는 자료 (㉢)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10. [출제의도] 제시한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쳐 쓴 내용 중에서 ㉠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다. 그런데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이 속담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④의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유의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눈에 익다'는 '여러 번 보아서 익숙하다.', '눈에 남다'는 '이미 본 것이 없어지지 않고 방금 본 것처럼 떠오르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따라서 유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안되다'는 '일,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못되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다.'의 의미를 가진다. 제시된 문맥 속에서 '일이 안되기를 바라다'와 '일이 못되기를 바라다'는 비슷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서'가 붙어 만들어진 '여기에서'의 다른 형태이다. ㉠에서 '손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다른 부사어로 바꿀 수 없다. '여기 이렇게 쥐고 있지 않은가'는 가능하다.

[13-16] (가) 신동엽, 「봄은」 / (나)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다) 박재구, 「희망을 위하여」

(가) 신동엽, 「봄은」

봄과 겨울을 대비하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겨울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 '강산'에 '미움의 쇠붙이들'이 존재하는 계절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한다. 반대로 봄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을 녹여 버릴 수 있는 계절로 화자가 소망하는 통일된 상황을 상징한다. 화자는 그러한 봄이 우리 국토,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움튼다'고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힘겨운 현실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당신'과 하나 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은 '오랜 침묵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추운 길목'과도 같다. 이러한 힘겨운 현실 속에서 '당신'을 만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가정형의 진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다) 광재구, 「희망을 위하여」

희망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너'는 바로 희망을 의인화하여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형의 진술을 통해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한 심정을, '-리'와 같은 어미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과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라는 유사한 시구가 처음과 끝에서 반복되면서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라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면서 희망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겨울'이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온 것을 과거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에는 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세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제주와 두만까지'를 공간의 이동으로 본다하더라도 그것이 시상 전개와 관련되지는 않으며 (나), (다)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봄과 겨울을 대비한 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화자의 염원을 대비하면서 화자의 염원을 이루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봄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계절의 순환을 현실 상황과 관련지은 것으로, 계절의 순환을 거부하려는 의지로는 볼 수 없다.

15. [출제의도] 관련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희망을 통해 절망적 현실에서 자신을 추스를 수 있다'는 시인의 말과 '내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 편안하여'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무릎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인다'는 표현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풀이] ② '너', 즉 희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희망을 갈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희망을 갈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희망을 깊이 갈구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보기>의 마지막 문장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를 참고할 때, 한세상의 슬픔을 본다는 것은 현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를 '-리'라는 어미를 통해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너그러운 봄'과 반대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시어이다. 매섭게 몰아친다는 점에서 냉혹한 현실을 상징하게 된다. ㉡에서 '눈'은 '너'의 등 위에 내려 앉아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껴안을 수 있는 포근한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세상을 덮는 눈의 속성과 관련된다.

[17-20] 하근찬, 「흰 종이 수염」

이 소설은 한국전쟁 중에 동길이네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목수였던 동길이네 아버지가 전쟁에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가 오른팔을 잃고 불구로 돌아오자 동길이네 가족은 불행해진다. 동길이가 사친회비를 못내 학교에서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궁여지책으로 극장에 취직하여 인간 광고판으로 일한다. '동길이가 아버지'가 극장에서 흰 종이수염을 달고 인간 광고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동길이가 아버지'를 놀린다. '동길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고, 아버지를 놀리는 친구들을 때려 준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의 실상을 극적인 장면 제시와 인물의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7. [출제의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동길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겪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구경하러 오이소, 느그 아버지, 와 이카노 와 이케' 등의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③ 사건의 진행에 따라 동길이의 감정이 '호기심→흥겨움→놀라움→슬픔→분노'로 변화하고 있다. ④ '사친회비, 활동사진' 등을 통해 전쟁 직후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동길이가'와 '동길이가 아버지'의 행동을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까지 제시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소설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버지는 동길이와 눈이 마주치자 약간 멧쩍은 듯했다. 그리고는 얼른 시선을 돌려 버리는 것이었다. 동길이는 코끝이 매워 오며 뿌연게 눈앞이 흐려져 갔다.'에서 '동길이가 아버지'는 난처해서 '동길이를 모른 척한 것이지 무시한 것이 아니며, '동길이는 이러한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글픔과 슬픔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인물의 모습에 드러난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동길이가 아버지'는 전쟁에 노무자로 징용당해 오른쪽 팔을 잃게 된다. 불구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커다란 상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길이가 아버지'는 징용당하기 전에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목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까지 흰 종이수염을 달고 인간 광고판이 되어 극장 선전을 하게 된다. 이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은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고 있으므로 관용적 표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가슴이 내려앉다'가 '몹시 놀라거나 맥이 풀리다'의 의미로, ③ '꿇전을 때리다'가 '귀에 세게 들리다'의 의미로, ④ '물 불을 가리지 않다'가 '위험이나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다'의 의미로, ⑤ '떡이 되다'가 '크게 곤욕을 당하거나 매를 많이 맞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다.

[21-23] 유영제 외 24인, 「미래를 들려 주는 생물공학 이야기」

21.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나)는 계면활성제의 부피가 팽창하여 생긴 모습이 아니라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미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따라서 계면활성제의 부피가 팽창하여 생긴 모습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A]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세탁물을 계면활성제가 풀린 물에 담그면 계면활성제 분자가 달라붙으면서 때를 둘러싸고, 그러면 때와 섬유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계면활성제가 계속 달라붙어 미셀이 형성되면서 때가 섬유에서 분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그림의 순서는 ⑥-①-③-④이다.

23. [출제의도] 문맥에 적용할 수 있는 한자 성어를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글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세제가 유발하는 문제로 환경오염과 피부나 모발의 부작용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천연 원료를 사용한 세제가 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첨가물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언급하면서 세정력이 강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무공해 세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무공해 세제의 개발은 세정력도 높이고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②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③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이익을 가로챈을 이르는 말이다. ④는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24-27] 심혜련, 「예술과 매체, 피비우스의 띠」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글의 설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사진의 등장이 회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 즉 사진의 등장이 인상파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①의 내용). 2문단에서는 영화의 등장이 회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 즉 영화의 등장이 기존의 원근법적 시각 대신에 동시적 시각을 택한 큐비즘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텔레비전의 등장이 회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 즉 텔레비전의 등장이 만화 이미지나 상품 광고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팝아트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②의 내용). 4문단에서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한 바, 즉 '매체가 회화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③의 내용).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의 작품 등을 예로 들고 있다(④의 내용). 하지만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결과적으로 사진의 등장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회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회화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진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인상파 화가들은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회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A]에서 사진의 등장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회화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가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큐비즘의 등장에 영향을 준 새로운 매체로서의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영화의 원리'가 큐비즘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화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영화 속의 원근감은 우리가 현실에서 사물을 지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내용은 큐비즘이 등장하기 이전의

화가들이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원근화법'을 택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큐비즘의 대표적인 화가라 할 수 있는 피카소의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여인은 앞 모습과 옆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하나의 평면적인 그림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28-31] 작자미상, 「토끼전」

토끼전은 우화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과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토끼의 간을 먹고자 하는 용왕은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상징하고, 용왕에 맞서 피로 위험을 벗어나는 토끼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나서는 일반 민중을 표상한다. 또한 서술자는 토끼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 비판적이고 희극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속고 속이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고전 소설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호랑이가 자라의 말을 듣고 도망가 숨는 '만첩청산 바위틈'만 나와 있다. 여기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단순히 호랑이가 숨는 장소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29. [출제의도] 대화에 내포된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은 자라가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히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한 생각으로, 호락호락하게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표현이다. 따라서 ①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덤벼 보겠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30. [출제의도] 다른 장면과 비교하여 소설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과 <보기>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보기
○ 자라는 호랑이를 만난다.	○ 토끼는 굶주린 독수리를 만난다.
○ 호랑이의 정체를 파악한 자라는 죽을 위기에 직면한다.	○ 여러 날 굶은 독수리로 인해 토끼는 죽을 위기에 직면한다.
○ 존재하지도 않는 '벽력장군'과 '도로랑 귀신'을 내세워 호랑이를 두렵게 한다.	○ 토끼는 각종 진기한 음식을 나오게 하는 '피 책'이 있다고 하며 독수리를 유인한다.
○ 자라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은 호랑이는 바위틈으로 도망친다.	○ 토끼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은 독수리는 토끼를 굴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 자라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 토끼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끼가 피 책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자라가 벽력장군이나 도로랑 귀신을 내세우는 부분'과 대응된다. '자라가 호랑이에게 자신과 몇 촌이나 되는지 묻는 부분'은 정확히 대응되는 부분은 없고 굳이 찾는다면 '자라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아직 깨닫지 못한 시기'이므로 표의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의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31.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호랑이는 자라의 교묘한 위협에 속아 바위틈으로 숨어서는 '도로랑 귀신'을 용케 피했다고 안도하고 있다. 호랑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속지 않는 허술한 거짓말에 허겁지겁 도망갔으며,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희화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이 나타난 것은 ④의 '두꺼비'이다. 두꺼비도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신에 어울리지 않게 허겁지겁 도망치고 나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32-35] 조공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32.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총체적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둘째 단락부터 여섯째 단락에 이르는 부분에 걸쳐 서술의 초점을 심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심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이드', '자아', '초자아' 각각의 특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에 있다.

33.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나타난 세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단락의 내용에 따르면 '이드'는 전적으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드'가 무의식과 의식의 작용을 동시에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34.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야기에는 작가 자신의 욕구에 맞춘 객관적 사실의 변형과, 작가 자신의 억압된 욕구의 변형이 담겨 있다. 그런데 주어진 글의 셋째 단락의 내용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무의식의 변형된 표현으로 보았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야기는 변형된 욕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작가는 객관적 사실을 자기의 욕구에 맞게 변형시킨다. ③ 세 번째 단락에 따르면, 무의식은 본능적 욕구와 관련된다. 그런데 <보기>에 의하면 이야기 속의 세계는 억압된 욕구가 변형되어 드러난 것이므로, 이야기가 무의식의 자유로운 표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욕구의 즉각적인 충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내적 긴장을 풀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이야기이다. ⑤ 이야기와 꿈에서 이드가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추리할 수 있지만, 초자아가 이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에서 '놓다'는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②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③ 집이나 돈, 쌀 따위를 세나 이자를 받고 빌려 준다. ④ 치료를 위하여 주사나 침을 찌르다. ⑤ 논의의 대상으로 삼다.

[36-39] 태진성, 「색깔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36.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가진 기능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은 셋째 단락에, ②는 넷째 단락에, ④는 [가]의 첫째 단락에, ⑤는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었다.

37. [출제의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노란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의해 반사된 빛이 파장을 감지하는 청원추세포는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빨강을 감지하는 적원추세포와 초록을 감지하는 녹원추세포를 자극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노란색을 인식할 때에는 청원추세포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적원추세포와 녹원추세포가 반응한다.

38. [출제의도] 세부내용을 그림을 통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그림에서 ㉔는 원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되면서 원래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여 들뜬 상태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㉕는 들뜬 상태의 전자가 안정을 찾기 위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빛이 물체를 비추는 것은 빛의 입자(광자) 하나가 물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비추는 것이므로 ㉔와 ㉕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원자에 일단 흡수되었다가 방출되는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㉔와 ㉕가 반복되면서 방출된 빛에 의해서는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빛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은 '가시광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가시광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빛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빛 : 가시광선'의 관계를 정리하면 '전체 : 연속적으로 이어진 전체에 포함된 일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의 '계절'은 '봄'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 : 봄'의 관계는 '전체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체에 포함된 일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40-42] 도모노 노리오 (이명희 역), 「초깃값 효과」

40.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는 EU의 장기 기증 동의와 관련된 대조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초기 설정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의 진행 과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컴퓨터의 초기 설정과 같은 일상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글의 핵심 개념인 '초깃값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③ 존슨과 골드슈타인이 실험을 통해 초깃값 효과를 확인했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④ 존슨과 골드슈타인이 초깃값 효과의 원인으로 분석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초기 설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초깃값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깃값을 설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초기 설정이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문의 (다)에서 장기 기증에 합의한다는 것이 초기 설정일 경우에는 82%가 합의했지만 임의 선택일 경우에는 79%가 합의하여 그 비율이 낮아졌다. 또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기 설정일 경우에 초깃값을 받아들인 것은 58%, 임의 선택일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21%이므로 역시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면 된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자동 가입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설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B(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를 선택한 사람이 75%인 것은 그것이 초기 설정으로 주어졌기 때문인데, 임의 선택으로 바꾸게 되면 B를 선택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오답풀이] ③ 뉴저지 주의 초기 설정은 A에 자동 가입하는 것인데,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처럼 B를 초깃값으로 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A보다 B를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A를 선택하는 비율은 A가 초깃값이었을 때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⑤ (다)에서 사람들이 초깃값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의 권유라고 생각해서이거나, 초깃값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간이나 노동력 등의 비용이 들고 그것을 손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뉴저지 주에서도 별도의 절차와 같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초깃값을 따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42. [출제의도] 적절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임의 선택일 때 장기 기증에 합의한 사람은 79%이고, 초깃값이 장기 기증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주어졌을 때 합의한 사람은 82%이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한다고 하면, 초깃값이 주어졌을 때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하지 않고 그것이 초깃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깃값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3-47](가)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나) 정습명, 「석죽화(石

竹花)」 / (다) 이병기, 「풍란(風蘭)」

(가)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오우가(五友歌)는 작자가 전라남도 해남의 금쇄동에서 자연을 벗 삼아 지은 연시조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시조를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작자는 '다섯 친구'로 거명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라는 자연물에서 '항상성, 의연함, 강직성' 등의 유교적 덕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다.

(나)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고려 때 문신인 정습명의 한시 작품으로, 초야에 묻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조그마한 야생화인 석죽화(패랭이꽃)에 빗대어 읊었다. 어느 환관(宦官)이 이 작품을 읊어 임금에게까지 들리니 임금이 감탄하여 작자를 옥당(玉堂)에 보임(補任)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다) 이병기, 「풍란(風蘭)」

글쓰기와 난초와의 인연을 차분하게 기술함으로써 풍진(風塵) 세상을 살아가는 고결한 기품과 정신의 깊이를 드러낸 글이다. 광란으로 병을 앓고 난 후 쇠약해진 상태에서 곁에 둔 풍란이 하얗게 꽃을 피운 모습을 보고 그 품과 향을 시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난이 글쓴이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香須問主人)'이라는 시구,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논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라는 진술 등을 통해 고결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부질없는 속물근성을 경계하는 글쓰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개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시의 중심 제재인 '좋은 꽃'에 대해, '어여쁜 모습', '바람에 전하는 향기', '아리따운 자태'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 역시 글의 중심 제재인 '풍란'에 대해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삽입된 시에서 '영롱함, 옥 같은 뿌리,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풍란의 고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든가, 글의 끝 부분에서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등에서 그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다른 나무들은 더우면 '꽃'을 피우고, 추우면 '잎'을 떨군다. 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술'은 '눈서리'를 몰라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이러한 '술'의 걸모습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뿌리의 곧음('절개, 강직함' 등의 덕목과 관련된다)을 유추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A에는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 '본질적인 속성'을 유추해 내는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와 유사한 사고 과정이 드러난 것이 ④이다. 사람의 언행(현상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됬됨이(본질적 속성)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45. [출제의도] 시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B에서 화자는 석죽화의 '어여쁜 모습', '아리따운 자태'를 노래하고 그를 찾아주는 '귀공자'가 적음을 안타까워함으로써 석죽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C의 화자는 '풍란'의 깨끗하고 고아한 외양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풍란'의 본성은 '방렬, 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옥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을' 등의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풍란의 본성을 표현한 부분들에는 계절적인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라는 문장에 드러나 있다. ② '풍란'을 예찬하는 이 글은 풍란을 얻

어서 기른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③ 글쓰이는 "뺨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라는 문장에서 난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글쓰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간죽향수문주인(看竹香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를 인용하여 "어느 집이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7.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풍란의 실제적인 효용'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그 '실제적인 효용'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확인할 수 없다. 글쓰이가 '풍란을 곁에 둔' 것은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8-50] 황화상, 「단어 형성과 의미」

48.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글쓰이는 형태 중심 연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후, 단어의 형태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미 중심의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단어의 형태는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어는 의미가 먼저 정해진 후 형태가 선택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형태 중심의 연구는 한계를 지니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중심의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태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②의 진술은 지문의 중심 내용과 상반된다.

[오답 풀이] ①은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③은 둘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④는 둘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⑤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서, 복합어인 '총잡이'나 '구두땀'의 의미 요소가 단어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의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표현할 형태가 나중에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과접시'의 경우에도 '사과'와 '접시'라는 어근이 결합된 복합어이므로, 단어가 형성된 후 새로운 의미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⑤ 형태는 '사과접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의미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단어의 형태가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과'라는 형태와 '접시'라는 형태에는 '깎아 놓는 데 쓰는'이라든가 '그런(사과) 모양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50. [출제의도] 접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총잡이', '구두땀', '때밀이'에 쓰인 접사 '-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글쓰이'에 사용된 '-이'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의 단어에 사용된 '-이'는 '사람'이라는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손으로 어떤 것을 열거나 들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 ② '힘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갓고 하는 일', ④ '봄에 싹이 터서 그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죽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⑤ '철판 위에 고기나 생선 따위를 구워 즉석에서 먹는 일. 또는 그 음식'